4년 대장정 오른 '민선 8기' 시·도정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구현"

광주시 광주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열어나갈 민선8기 강기정호가 닻을 올리고 4년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4대 광주시장 취임식을 갖고 민선8기 광주시정을 시작했다. 특히 강 시장은 기존 관행처럼 읽어 내려가던 식의 취임사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시정철학과 로드맵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일 시청 기념식수동산에서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 시장은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 신경제지도'와 '광주 신활력특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 신경제지도는 기존 제조업과 인공지능 산업에서 확보한 경쟁력은 확장하고, ▲반도체 ▲차세대배터리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국제마이스 등 5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광주 신활력특구는 즐길거리가 부족하던 도시에서 맛을 알고 멋을 아는 '재미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게 된다.

또 '온종일 돌봄'을 통해 장애인부터 영유아, 어르신까지 보육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에 놓아 모든 시민 중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로 조성한다.

'신 경제지도' 기치 정무적 리더십 강조

강 시장은 "이 모든 변화는 시민과 공직자의 소통과 결합을 전제로 한다"며 "광주 변화의 동력은 '공직자의 창의성'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광주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왔으며, '의무'와 '당위'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며 "일을 통해 나 자신이 빛나고 나의 오늘만이 아니라 나의 내일도 빛날 수 있도록, 민선8기 광주시정은 창의적 행정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만들어 자신의 내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50 플러스 세대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나의 삶'이 빛나고 미래보다 더 가까운 '내일'이 빛나는 광주가 되도록 하겠다"며 "머금었던 빛을 발산하는 도시, '기회도시 광주'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취임식이 끝난 이후에는 MZ세대 공직자들과 집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는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염주동CCTV관제센터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의 강점으로 세계와 경쟁"

전남도 김영록 제39대 전남도지사가 지난 1일 전남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담은 '전남도 비전선포식'을 여는 것으로 민선 8기 도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취임식과 병행해 도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이 무안 남악에 있는 전남항일독립운동기념탑, 목포에 있는 현충탑, 남악에 있는 김대중동상을 잇따라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일 전남시군·광주시의 '상생의 흙'에 섬진·영산·탐진강 물을 식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본 행사인 비전선포식에서는 김 지사가 직접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비전' 실현을 위한 8대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남해안에 우주산업·소재산업벨트와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광주·전북·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을 만든다.

반도체·우주항공·데이터 등 '첨단전략산업에 30조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고흥에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규모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고 '한국에너지공대'를 초일류 대학으로 키운다. '초강력레이저 국가연구시설'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도 나선다.

'해양관광 SOC 확충'과 '전남 방문의 해'를 기반으로 '전남 관광 1억 명, 해외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하면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립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습지정원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미래 100년 비전 선포 반도체 단지 등 주력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를 육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한다. 국가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와 김 산업 혁신 클러스터 등도 구축한다.

경전선 완공과 전라선 고속철 착공을 앞당기고, 서울~전남~제주 고속철을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도민 30년 숙원 국립 의과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호남 청년아카데미',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 명 육성' 등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주요 기관의 전남 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를 이끈다. 광주와 상생협력을 강화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과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유치,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확충 등 초광역경제동맹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200만 도민이 단합하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하며, 1,000만 향우들까지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며 "도민 한분 한분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달 중순께 대도민 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공약 실천과제와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선우 기자

전남 6개 시군, 축산악취 개선 기반조성

영광·해남 등 공모 선정 사업비 157억 '전국 최대'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에서 6개 시군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 15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 공모는 축산농가에 필요한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정화방류시설,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설, 축분급속발효시설, 가축분뇨 처리용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군을 평가해 선정하는 전국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시군당 3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선정된 시군 중 영광, 해남, 영암 3개 군은 우선 사업자로 뽑혀 사업비 9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순천, 화순, 강진 3개 시군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대로 67억 원을 투입해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대상 농가의 인허가를 올해 안에 추진하고, 내년 시군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선우 기자

광주TP '규정 위반' 원장 전용 운전원 적발

광주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어기고 원장 전용 차량 운전원을 둔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0년 9월 공공기관 공용차량 이용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산하기관 자체 규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표준안은 공용 차량이나 전담 운전원을 기관장 등 임원 전용으로 배정해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 업무 담당자는 2020년 12월 부하 직원이 이런 내용으로 차량 관리 지침 개정안을 작성해 결재를 올리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 이후 테크노파크는 2021년 3월부터 1년간 용역 업체로부터 파견자를 받아 원장 전용 공용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상급 기관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 업무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테크노파크에 요구했다.

이 직원은 다른 시도 테크노파크와 비교하다보니 지침 개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직원 호봉 재획정, 신규채용자 경력 산정, 인사 관련 정비, 직원 채용 공고 조건 등에서도 문제를 발견하고 모두 18명에 대해 문책,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길용현 기자

도, 여름 가축질병 대응체계 돌입

동물위생시험소 신고센터 방역취약지역 소독 지원도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 혹서, 장마, 태풍 등에 따른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가축질병 의심 신고 발생 시 신속한 질병 진단과 치료 등 대처 방향을 제시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방역취약지역 소독을 지원한다.

가축질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질병진단반, 방역지도반, 방역지원반, 3개 반을 편성했다.

지난해 신고센터는 총 115건의 가축 질병 의심신고 및 검사의뢰를 접수했다. 이 중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법정전염병 6건과 소 로타바이러스 등 71건의 전염성 질병을 진단해 치료 및 예방법을 축산농가에 제공했다.

기상청은 올 여름철이 평년보다 고온다습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러한 날씨가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에 감염이 되기 쉽다.

이에 축산농가는 세심하게 사양 및 질병 관리를 해야 한다. 중점 관리사항으로 모기 서식지 살충제 살포, 축사 내 방충망 설치 등 가축과 모기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그늘막, 안개분무기, 송풍기 등을 설치해 축사의 고온·다습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오염되거나 부패한 불량 사료를 제거하고, 깨끗하면서 시원한 물과 비타민, 광물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적정 사육밀도 준수와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도 필수적이다. /오선우 기자